

진화론에

세뇌당한 것은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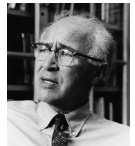


저자: D. 기시 박사 (미국 창조론 연구소 교수) 역자: 정동수 박사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두루
마리**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기로 했다?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만 존재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자발적인 발생 곧 진화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이다. 셋째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자발적인 발생론 즉 진화론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퇴르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거짓으로 탄로가 났고, 그래서 불신임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에게 한 가지 논리적인 귀결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결론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



- 조지 월드(G. Wald) 박사, 하버드대 교수, 생리학 의학 분야 노벨상 수상(1967),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당신은 어떻습니까? ... 무엇이 과학입니까?

- 무(無)에서 유(有)가 나올 수 없으며 생명은 반드시 생명에서만 나온다.
- 같은 종에서 같은 종이 나온다. 그냥 두면 모든 것이 무질서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과학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진리가 변한 적이 있습니까? 과학자가 말한다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편견이 옳은 것인지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마귀의 진화론에 넘어가서 인생을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구원이라는 진리 안에서 이 세상과 다음 생의 목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데이비스 캠퍼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신문에 실린 기사 읽어봤나?
“진화론에 세뇌당한 것은 아닙니까?”



그래, 과학 박사가 진화론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야.

놀라운데! 자기의 주장을 지지해 줄 증거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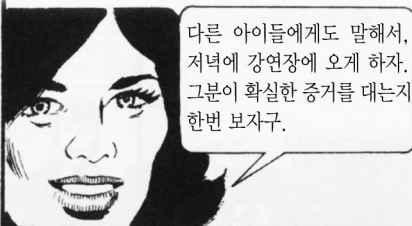
이 기사가 보도한 내용을 들어보라구. “우리는 이
캠퍼스에 4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왜 이런 증거들에
대해 한 번도 듣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모든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다른 견해를
들어볼 것을 촉구합니다. 결코 세뇌 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에 기쉬 박사가 창조/진화 문제에
대해 또 다른 견해를 제시하려 하니 그분의 말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가서 그분의 말
을 들어보자. 재
미있을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실은 나도 진화론 문제로
혼동에 빠져 있었거든.



나도 그래. 사람은 더 낮은 상태의
생명에서 진화되었고 또 생
명은 죽은 상태에서 나왔다고 배워
왔잖아...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아.



다른 아이들에게도 말해서,
저녁에 강연장에 오게 하자.
그분이 확실한 증거를 대는지
한번 보자구.

그날 저녁

기쉬 박사님, 오늘밤 이렇게 강연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왔으면 좋겠
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나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와, 이렇게 많은 학생이 오기는
처음입니다.



오늘 밤의 연사인 기쉬 박사
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밤에 데이비
스 캠퍼스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는 이 책자
에 맞추기 위해 많이 줄인 것입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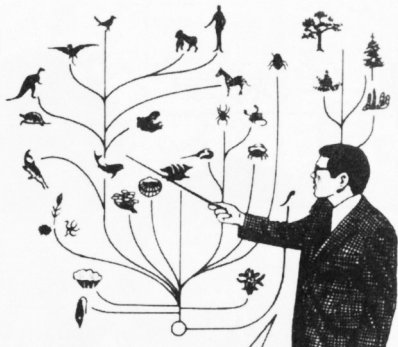
과학자로서, 저는 어떤 주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모든
증거와 사실을 다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분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실을 살펴
보라는 것입니다.

과학 교사들이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창조를 배제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완전한 증거를 다 들어보지도 못한 채 진화론에 증독되고 맙니다.

이런 상황은 창조와 진화, 이 둘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각각이 주장하는 바를 조사해 봅시다.



진화론자들은 죽은 물체에서 나온 단세포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점진적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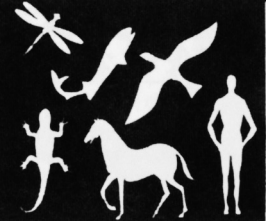
창조론자들은 생명과 사람이라는 존재가 창조주의 창조를 통해 생기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저등 생명체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더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로 옮겨 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줄 화석들입니다.

만일 진화가 사실이라면, 이같은 과정이 여러 가지 변화의 형태를 담은 화석 기록 속에 분명히 들어 있어야만 합니다.

창조를 지지하기 위한 증거는 복잡한 생명체들이 순식간에 나타남을 보여주는 화석들입니다. 물론 저등 동물이 고등 동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화석이 있으면 창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화석들의 증거를 살펴봅시다.

캄브리아기 암석층에는 무수히 많은 무척추 동물들의 화석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데본기

실루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캄브리아기

선캄브리아기

(캄브리아기 동물의 선조가 없음)

지구의 표면

(화석이 없음)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되는 수십억 개의 화석들은 모두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들입니다.



이 복잡한 형태들이 단순한 생명체에서 발전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단세포 미생물이 갑자기 이런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는 데 수십억 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단세포

화석의 증거가
수십억 년 동안 전혀 없음



선캄브리아기 암석에서 단세포의 연질 미세 박테리아 등이 발견되었음을 알리는 보고서가 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창조물과 캄브리아기의 동물들 사이에 존재한 '중간 변이 형태'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그런 것들이 존재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매우 복잡한 형태의 동물들 즉 예를 들어 삼엽충, 파리조개, 산호, 지렁이, 해파리 등은 결코 저등 동물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지 않으며 갑자기 나타납니다.

또한 화석 기록의 다른 부분들을 통틀어서 진화론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중간 변이 형태'는 놀랍게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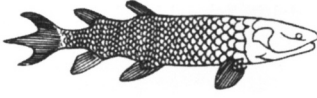
멍게는 척추 동물의 시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사이의 '중간 변이 형태'는 없습니다.

물고기

진화론자들은 무척추 동물에서 물고기가 되는 데에는 일억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음을 보여주는 화석의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진화론자들은 물고기가 양서류로 진화하는 데에는 오천만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간 번이 형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느러미와 발을 동시에 가진 화석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물과 동물의 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무척추 동물,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날아다니는 파충류, 새, 박쥐, 영장류, 사람 등 모든 고등 생명체들은 한결같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진화론을 옹호하는 선두주자들의 말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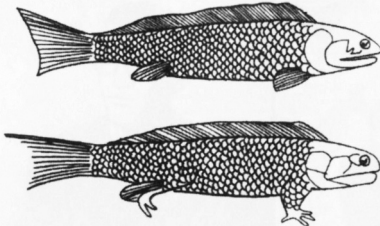


다윈은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만일 진화론에 따라 수많은 ‘중간 형태들’이 존재했다면 왜 우리는 지구 표면의 화석에서 이런 것들 수도 없이 많이 파묻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 살아 있는 것과 멸종된 것들을 연결해줄 ‘중간 단계 형태들’은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야 할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고(故)골드 슈미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종류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단 한 종류도 없다. 돌연변이를 통해 지금까지 아무도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지 못했음을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버드 대학의 심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 및 동물의 서로 다른 종류들 사이의 간격은 항상 규칙적으로 나타나며 또한 매우 크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코너 교수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편견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화석의 기록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특별 창조를 지지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만일 진화가 사실이라면, 왜 지금도 진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에도 새로운 기관이나 조직이 생겨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과거에 진화 과정이 정말로 일어났으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조새가 새와 파충류 사이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파충류와 시조새 사이에는 엄청나게 다른 점이 많습니다.

시조새는 날개와 깃털이 있었고 또 날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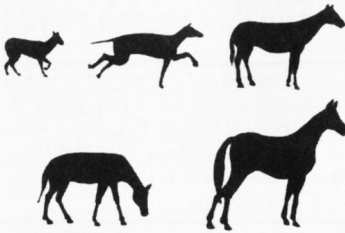
날개에 발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 새가 파충류에서 나왔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두 종류의 새가 날개에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화석학자들이 시조새는 새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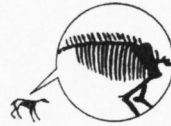


또한 유명한 말 시리즈 역시 화석 기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상상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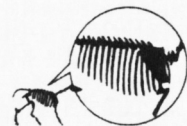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말 시리즈에 나오는 화석들은 적절한 시간대에 나오지 않으며, 주요한 말 종류 역시 '중간 변이 형태'를 거치지 않고 나타납니다.

말 시리즈의 골격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오히푸스
18쌍의 갈비뼈



오로히푸스
15쌍의 갈비뼈



플리오히푸스
19쌍으로 증가함



에쿠스 스코티
다시 18쌍으로 됨

다윈은 기린이야말로 자연선택의 훌륭한 예라고 말했습니다.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푸른 이파리들이 나무 꼭대기에만 남게 되었고 그래서 짧은 목을 가진 기린들은 다 죽게 되었으며 긴 목을 가진 기린들만이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윈은 후손이 지닐 몸의 성질이 목을 자꾸 늘거나 몸을 움직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의 유전자나 유전 물질에 의해 결정되고 프로그램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1966년 12월 9일자 「사이언스」 지 표지에는 오천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박쥐 화석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박쥐 화석이었는데요, 지금의 박쥐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오천만 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러나 화석 어디를 보아도 짧은 목의 기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짧은 목을 가진 새끼 기린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제 인류학자들이 진화를 증명하기 위해 수집한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떤 이들은 라마피테쿠스가 호미니드 즉 사람 같은 원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주장의 근거는 단지 이빨 몇 개와 턱뼈 몇 조각뿐입니다. 이 자료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라마피테쿠스



최근에 라마피테쿠스에 대한 화석 자료가 더 발견되었는데, 이 자료는 그것이 사람과 원숭이 사이의 중간 형태가 아니라 단지 오늘날의 오랑우탄과 똑 같은 것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1924년 닥트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비록 그 두개골의 모습이 여러 군데 원숭이 같다고 지적하긴 했지만 그는 이빨만큼은 사람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의 뇌의 크기는 현대인의 1/3 정도 되었고 신장은 1.2미터 정도 되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해부학자요, 진화론자인 주커맨 박사와 옥스나드 박사는 여러 해에 걸쳐 정교한 분석방법으로 연구를 한 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사람처럼 걸은 적이 없으며 또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중간 단계도 아니라고 단언하였습니다.

1920년대에 북경 근처의 석화암 절벽에서 두개골, 턱뼈, 이빨 등의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원래의 뼈들은 다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북경원인



사람들은 이 뼈들의 주인공들이 죽음을 당해 잡혀 먹었으며 두개골만은 전리품으로 보존된 것으로 믿었고, 유명한 인류학자들은 아직도 이들을 사냥한자들이야말로 진짜 사람이며 '북경 원인'은 큰 원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바 원인은 단지 대퇴골(허벅지뼈)과 두개골 윗부분과 어금니 세 개를 이용하여 구성한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은 약 1년에 걸쳐 사방 15미터 내에서 주워 모은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뒤브와 박사는 자신이 자바 원인 옆의 같은 높이의 지층에서 사람의 두개골들을 발견한 것을



자바원인

거의 30년간이나 숨겨왔습니다. 따라서 자바 원인이 존재하던 때에 이미 사람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로 보아 그 대퇴골은 사람의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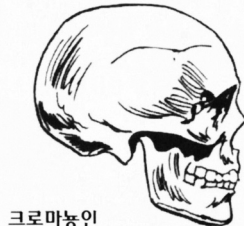
두개골 윗부분은 원숭이의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죽기 바로 전에 그리고 초기의 회의론자들을 거의 다 설득한 후에 마음을 바꾸어 자바 원인이 큰 긴팔 원숭이이며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밝혔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은 현대인의 두개골과 거의 비슷하며 뇌의 크기는 심지어 현대인보다 더 큼니다.



네안데르탈인

한때 진화론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지금부터 25,000-100,000년 전에 살았다고 주장했지만 지금은 모든 인류학자들이 이들을 여러분과 저 같은 현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로마뇽인

크로마뇽인의 두개골이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의 뇌 크기는 현대인보다 더 크며, 만일 크로마뇽인이 지금 신사복을 입고 거리고 나선다면 아무도 그를 특이한 존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중간 연결 고리들' 가운데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네브라스카인과 필트다운인입니다.



저 유명한 스크프스 진화론 재판에서 그 당시의 진화론 권위자들은 네브라스카인을 진화의 증거로 제시했으며,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증거가 미약함을 지적하자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증거란 지금부터 백만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선사시대 사람의 것으로 알려진 이빨 한 개였습니다.

그 이후에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네브라스카인은 사람이 아니고 돼지임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진화론자들이 상상속에서 돼지를 원숭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1912년에 도슨은 필트다운인을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전문가들은 턱뼈 조각, 두 개의 어금니, 두개골 조각등을 증거로 삼아 그가 지금부터 오십만년 전에 살았던 원숭이/사람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1953년에 그의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턱뼈는 현대 원숭이의 것으로 드러났고, 이빨은 줄질을 하고 뼈들은 인위적으로 색깔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사기를 통해 전문가들이 쉽게 속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진화론자들이 그만큼 엄청난 편견을 가진 채 일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미국 텍사스 주의 글렌 로즈 근방에는 공룡의 발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 바로 옆에는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들도 많이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잉골스가 진술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인해 결코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석탄기에 존재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지질학은 완전히 틀린 것이 되며 지질학자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트럭 운전이나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런 증거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1973년 8월호 「리더스 다이제스트」 지에는 그루립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두 가지 사실이 실려있습니다. 이 발견들로 인해 인류학계는 발각 뒤집혔는데 왜냐하면 인류의 기원에 대한 그들의 이론이 큰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진화론자들이 280만년 된 것으로 추정된 두개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약 100만년 전에 원숭이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된 뼈들은 피테칸트로프스보다 더 오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시조로 추정되어 온 피테칸트로프스는 결코 진짜 인류의 시조가 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부모가 자식보다 더 젊다는 사실을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둘째 것은 10만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세련된 인간의 뼈대였습니다. 그들은 채광 기술을 개발했고, 기록을 남기거나 수를 셀 수도 있었으며 고도의 연장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런 세련된 인류가 지금부터 육만오천 년 전에야 이 땅에 존재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280만년 전의 두개골을 발견한 리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실에 대해 논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다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이를 대체할 다른 대안을 줄 수 없습니다.”

무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물들에게서 발견되는 염색체의 변이는 진화론이 예측한 바와 다릅니다. 덜 복잡한 것에서 더 복잡한 것으로 갈 때에 결코 염색체 수가 어떤 일정한 형태로 증가하지 않는데, 만일 진화가 옳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염색체의 유전자 안에 있는 유전 물질들은 여러 가지 변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개구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진화론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다윈주의는 참으로 비 논리적입니다.”

모리스 교수는 진화론이 온 우주에 적용되는 열역학 법칙과 완전히 위배됨을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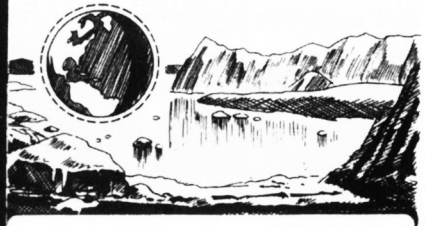
열역학 제2법칙은 모든 것을 그대로 두면 언젠가 더 복잡한 것에서 덜 복잡한 것으로 질서 잡힌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그와 정반대로 단순하고 무질서한 것에서 복잡하고 질서 있는 것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사는 우주의 질서와 정교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의 크기에 대해 연구하면서 우리는 지구의 질량과 크기가 아주 적당함을 발견했습니다.

만일 지구의 직경이 12,800km가 아니고 11,520km라면 대기권 덮개가 줄어들어 온통 얼음덩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이 10% 정도 크거나 작다면 아무 생명체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지구의 평균 온도가 2~3도 정도 더 높았다면 빙하가 녹아 많은 도시들이 다 잠겨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비옥한 땅의 상당 부분이 다 침수되었을 것입니다.

북극성을 향하고 있는 지구의 축은 수직에서 23도 기울어 있는데 이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 때문에 태양은 여름에는 북쪽으로, 겨울에는 남쪽으로 옮겨가는 듯이 보여 온대 지역에서 사계절을 만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태양은 항상 적도에 있을 경우 즉 계절의 변화가 없는 경우보다 경작하고 거주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이 두 배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지구가 다른 식으로 기울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얇은 오존층 덕분에 태양에서 나오는 여덟 가지 유해한 광선 등을 쏘이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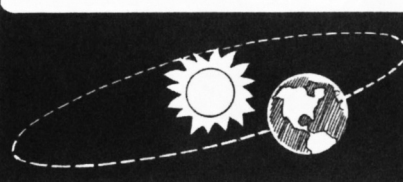
대기권에서 64km 위에 0.3cm 두께의 오존층이 있는데 만일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없다면 모든 생명체가 멸망할 것입니다.

우주 전체를 살펴볼 때 지구에 바다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적입니다. 짙물이든 단물이든 우주에서 물을 찾기란 그야말로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믿는 바와는 달리 자연계에 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예외적인 일입니다. 우주의 대부분의 물질은 불타는 가스나 얼어붙은 고체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한 점의 오류도 없이 온 우주가 잘 돌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지구가 매년 정확하게 365일 5시간 48분 48초만에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런 궤도 속에서 지구는 거의 변하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완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0절이 말하듯이, 자연과 창조 세계 자체가 창조주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다 설계자가 있지 않습니까? 법마다 다 입법자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진술은 우주와 만물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가장 합리적인 진술입니다.



1.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2.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3.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당신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신이 “창조를 믿느냐” 혹은 “진화를 믿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당신이 진화를 믿는다면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며 삶의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창조를 믿는다면 당신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태어난 존재이며 따라서 당신을 창조한 창조주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무엇이 과학입니까?

1.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
2. 같은 종에서 같은 종이 나온다.

이것이 과학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이것이 변한 적이 있습니까? 부디 진화론에 속아 넘어가 이 생을 마감한 뒤 영원히 뜨겁게 타오르는 지옥불에서 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롬6:23)

듀웨이 T. 기쉬 박사(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 생화학과 교수)는 캘리포니아 주 엘카혼 창조론 연구소의 부소장입니다. 기쉬 박사는 코넬 의대,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 바이러스 연구소와 업존 의약품 회사에서 18년간 생화학 연구를 해왔습니다.

인생에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당신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당신이 '창조를 믿느냐' 혹은 '진화를 믿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당신이 진화를 믿는다면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며 그 결과 삶의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는 허망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창조를 믿는다면 당신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태어난 존재이며 따라서 당신을 창조하신 분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창조자 하나님입니다(요1:1-3),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이며(딤후1:15), 영원한 심판자 하나님입니다(행17:31).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당신에게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창조자에게 손들고 나오면 그분께서 부드럽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롬10:13)

저자소개

저자 : 듀에인 T. 기쉬 박사(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 생화학과 교수, 캘리포니아주 엘카혼 소재 찰론 연구소 부소장, 코넬 의대·버클리 캠퍼스 바이러스 연구소와 업존 제약사에서 18년간 생화학 연구)
역자 : 정동수 박사(미국 메릴랜드 주립대 공학 박사,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사랑침례교회 목사)

추천도서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한영대역·스터디바이블·큰글자성경·작은성경·박사성경 등/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교과서 속 진화론 바로잡기 교과서개정추진회 외 저/ 생명의말씀사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에인 기쉬 저/ 국민일보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넬슨 외 저/ 전광호 외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추천사이트

한국창조과학회 www.kacr.or.kr **창세기해답** www.answersingenesis.org
생명의길 www.wayoflife.org **사랑침례교회** www.cbck.org